



GYS 기업 소개

-1964년부터 용접-충전-차체수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GYS는 1964년 설립된 가족기업으로서 현재 전세계에 근로자 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GYS는 최첨단 연구센터를 통해서 용접기 및 배터리 충전기, 자동차 차체 수리 관련 장비의 개발과 제작 부문에서 세계시장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기업 개요

- 근로자 500여명
- 생산공장 2개 (프랑스, 중국)
- 연구개발인력 40여명
- 제품판매 전세계 107개국
- 해외 지사 및 영업법인 (독일, 영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기업 역사

1964년, Guy-Yves Stephany(기-이브 스테파니)가 GYS를 설립해 변압기 생산

1970년, 충전기 및 시동장치 등 배터리 유지보수용 제품 생산

1980년, 아크 용접기 생산

1997년, 현재 오너 가문인 GYS를 인수해 현재까지 2대째 경영

1997-1999년, 전자지도 제작팀을 창설해 첫번째 변화 시도

1999년, 인버터 아크 용접기 최초 생산/판매

2000-2001년, 연구개발투자로 직류교류전환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용접기 생산

2002년, 자동차 애프터서비스용 전기저항 용접기 생산

2004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일반용 배터리 충전기 생산

2006년, 독일 Aachen 영업법인 설립

2008년, 영국 Warwick 영업법인 설립

2011년, 중국 상하이 영업법인(조인트벤처) 설립 계약

2013년, 인도 Coimbatore 지사 설립

2014년, 프랑스 Laval에 최첨단 연구개발센터 설립

2015년, 이탈리아 베니스 영업법인 설립

제품 소개

GYS는 아래 세가지 종류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 **용접장비:** 크고 작은 공장이나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접기 및 부품, 소모품

• **배터리 유지보수용 장비:** 2개 GYS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50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다

• **자동차 차체 수리용 장비:** 사고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 (사고 패널 복원, 용접, 리베트, 리프트, 인덕션 히팅, 기타 공구. 모든 장비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 하에 개발되어 오늘날까지 신뢰받고 있다.

조직

• **연구개발부:** 전자, 기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되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4년 새 연구센터를 설립해 고급 연구인력들이 첨단장비로 혁신적인 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GYS의 역량 높은 엔지니어들이 고객들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 **산업공정의 완전 통합 시스템:** GYS 생산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기술자들(전자, 기계, 변압, 전선, 판금, 도장 ...)을 접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다. GYS의 철학은 생산공정을 완전히 통합해서 가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업공정은 ISO 9001 인증을 받은 작업실에서 실현되어 특히 높은 유연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 받고 있다. GYS는 생산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은 내일의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기업의 존재이유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 **국제시장 진출:** GYS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현재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해 4개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GYS는 역동적인 팀 조직과 야심적인 성장전략으로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항상 새로운 영역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간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

우리의 DNA는 “미래에 대한 투자!”

오늘의 시장현실은 항상 변한다. GYS는 가족기업 규모로 시장의 새로운 상황과 요구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GYS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모토로 정했다. GYS는 기업의 미래가 고객들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GYS는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판매업자와 소비자들 어떤 도전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서, GYS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각별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